

Anthony J. Tomasino 박사, 십계명, 세션 1, 십계명과 율법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차 세션은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니 토마시노입니다.

몇 년 전 출간된 십계명 관련 책의 저자이며, "마음에 새겨진,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위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사실 그 책은 처음에는 설교 시리즈로 시작했는데, 그 설교 시리즈가 주일학교 수업 시리즈로 이어졌고, 그 주일학교 수업 시리즈가 여러 성직자 그룹에게 한 강의 시리즈로 이어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음, 내 노트를 모두 모아서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책을 처음 쓴 이후 몇 년 동안의 생각과 오래전 십계명을 다루면서 제기했던 중요한 요점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매우 실용적입니다. 십계명은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주어진 맥락뿐 아니라 우리의 맥락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의 지평과 우리 현대 사회의 지평이 합쳐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위한 십계명"인 이유입니다.

유행어 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질문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년 전이나 500년 전과는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고, 3,000년 전과는 확실히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삶과 상황에 적용한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살펴보고, 그것이 성경 율법, 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규정된 율법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그 일부, 아니 어쩌면 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십계명이 그 율법 전통 전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십계명에 대한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십계명은 십계명이라고도 불리며, 저는 이 단어를 가끔 사용하곤 합니다. 십계명은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기본 문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기본 문서는

윤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십계명, 영적 토대를 제공하는 주기도문,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새 교회에서 부임할 때면, 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일련의 설교에서 제시합니다. 십계명으로 시작하여 보통 사순절에는 주기도문을 하고, 여름에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초를 다룹니다. 제가 섬겨 본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의 완전하고 충만한 토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좋은 시작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십계명을 기본 법전, 고대 이스라엘의 기본 법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습니다.

십계명을 법정에 걸어둘 수 있을지, 모든 학교에 십계명을 두어야 할지, 그리고 이런저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모든 정의로운 사회의 진정한 기반이라는 주장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특정 사회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주님을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걸까요?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붙여 놓았다면 이런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십계명은 마법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계명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통해, 십계명을 다루면서 이끌어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계명들에 내재된 지혜와 지식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십계명을 교실이나 법정 등에 두는 것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던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십계명을 말해 보세요. 평균적인 기독교인이 몇 개의 계명을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네 개를 맞혔습니다. 십계명 중 네 개를 맞혔습니다. 순서

대로 말해 보라고 하면 거의 모두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에 대해 너무나 무지합니다 .

그러니 앞으로 몇 차례의 강의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이 고대 이스라엘 법전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이미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몇 년 전 구약성서의 법에 관한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이 무엇인지, 법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는 시로 시작합니다. 마치 포르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것 중 하나죠.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케임브리지 사전에 따르면, 법은 보통 정부가 사회의 행동 방식을 규제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꽤 간단 해 보이네요 . 아주 간단 하죠 .

그리고 우리에게는 규칙이 있고, 규칙을 집행하는 정부가 있으며, 행동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규칙에 그치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은 규칙 일 뿐입니다 . 시민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든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든, 지켜야 할 법과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우리 대부분은 법이라는 개념에 익숙하고, 법을 아주, 제 생각에는, 절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55마일입니다. 그게 법이죠. 시속 56마일로 가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법에 따르면, 길모퉁이에서 어슬렁거리면 5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하죠. 네, 그게 규칙이에요.

그것이 바로 규정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원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은 그런 면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법에 다시 적용합니다. 저는 성경의 법이 그보다 조금 더 유연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곧 살펴보겠지만, 고대 근동의 법은 우리 시대와 사회에서 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법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문자가 존재하기 전부터 다양한 고대 사회가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회와 집단의 사람들은 서로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것을 막고,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구전법은 아마도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고 우리가 사회라고 부를 만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법전 말입니다. 당시 법전은 다양한 영주들이 지역 권력에 대한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왕국이 성장하고 제국이 성장하기 시작하자마자, 일부 도시 국가,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영토 아래 존재하던 다양한 부족 집단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 간통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규칙을 가진 부족에서, 다른 규칙을 가진 부족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 모든 다양한 집단을 정복하는 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너희는 내 방식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전 집단들이 행했던 일을 반드시 폐지하거나 무효화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왕이 하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여 그들이 이제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종주국들이 이러한 권력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들, 특히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문서들 중 일부는 법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원전 175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함무라비는 사실 상당히 늦은 시기의 법전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은 우르남무라는 사람이 남긴 것인데, 그는 기원전 2500년경에 살았던 고대 수메르인입니다. 이 법전들은 후대 법전에서 볼 수 있는 법들 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 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이 많았죠 .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전 모음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문서들이죠. 이 왕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영토 아래 있는 여러 민족에게 권위를 행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꽤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로 몇몇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들이시죠.

문제는 법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법은 다릅니다. 성경의 법은 하나님에게서 온 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의 법은 왕에게서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들은 이 법들을 제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들은 법을 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신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권위의 원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서서 샤마쉬 신에게서 법판을 받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샤마쉬는 고대 바빌론의 정의의 신이었습니다.

법은 일종의 계약,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너희들은 이 새로운 규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으니, 너희는 내 말에 대답 해야 할 거야 .

왕과 국민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어 함무라비 제국의 일부가 될 권리를, 그 어떤 권리든, 스스로 떠맡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무라비의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도 스스로 떠맡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근동의 법 전통 전체에 걸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계약 관계로 존재합니다. 왕은 이 사람들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에게 법을 부과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아시리아인과 히타이트인에게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왕의 통치와 그가 백성을 위해 행한 일들이 왕에게 백성에게 이러한 언약적 의무를 부과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적 의무는 법의 형태를 띠니다. 고대 근동에는 법이 표현되는 두 가지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알브레히트 알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단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법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은 누구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알브레히트 알트는 두 가지 유형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 명제론적(apodictic)과 결의론적(casuistic)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명제'는 기본적으로 '말로', '명령 으로', '지시로'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선언 으로', '너는 하라, 너는 하지 말라'와 같은 의미죠. 이것이 명제적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법은 우리가 결의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판례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들이받을 소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소를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그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 종류의 일이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의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법률입니다. 이것은 함무라비의 석비 사본입니다 . 그의 법전이 모두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그의 왕국 경계 곳곳에 설치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샤마쉬 신이 보입니다.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걸 보면 그가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신들은 항상 어떤 종류의 뿔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머리 꼭대기에 뿔을 다 가지고 있고, 꽤 큰 편이죠.

그는 남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함무라비 왕에게 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는 여기서 매우 노골적으로 정의의 신, 샤마쉬 신이 법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은 명제적이기보다는 매우 전형적으로 결의론적입니다.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어떤 사람을 고소했는데, 피고인이 강에 가서 뛰어들었다가 강에 빠지면 고소인은 그의 집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물이 피고인이 무죄임을 증명하고 그가 다치지 않고 도망친다면, 고발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고, 강에 뛰어든 사람은 고발자의 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말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마녀 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녀를 강에 던지면, 그녀가 진짜 마녀라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라앉으면, 그녀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죠. 가라앉았다는 것은 그녀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뻔한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강에 뛰어들고, 수영을 하면 무죄라는 뜻이죠. 하지만 강물에 빠져 익사하면 유죄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흥미로운 점은, 많은 고대 법전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점점 더 많은 문서를 해독할수록 법원 소송 기록이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여러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많은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함무라비 법전은 당시에는 집행되지 않았습나다.

그들이 훌륭하고 잘 설계된 법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이 연구하며 “이건 정말 대단한 법전이야”라고 말할 정도였지만, 판사들은 판결을 내릴 때 함무라비 법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상징적인 의미였을 수도 있겠네요. 함무라비의 제안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제 기본 원칙들이 명확하게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처벌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그래서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남자가 간통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간통한 남자와 간통한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계에는 상당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리아 중기 법전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전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을 저지르고 그녀를 유혹하여 간통을 저질렀다면,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살려주고 싶어 한다면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라면, 그 남자도 죽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 남자가 아내의 코를 자르려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간통을 처리하는 방식 중 하나였기에, 그들은 그 남자의 코도 잘랐을 겁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체 부위를 자르는 데 매우 적극적 이었습니다.

좀 소름 돋네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일종의 지침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제한 속도가 시속 55마일 인데, 시속 56마일로 달리면 1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

그 이후로 올랐을지도 몰라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어쨌든 제한 속도는 시속 55마일 이에요.

경찰의 재량에 달린 문제죠, 그렇죠? 시속 56마일로 운전해서 실제로 티켓을 받을지 말지는 경찰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속 56마일로 운전해도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00달러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찰이 어느 정도 관대하게 처벌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56번이나 하니까, 왜 내가 널 골라야 하지?” 네, 맞아요. 이 율법에는 우리가 은혜나 관대함 , 혹은 단순한 신중함 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었죠 . 자, 이것이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과 어떻게 비교될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것 중 하나는 “오, 구약의 율법은 너무 가혹해, 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위해 모두를

죽었지, 그렇지?”라는 것입니다. 음, 생각해 봅시다. 우선 , 율법, 즉 토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야기해 봅시다.

보통 율법으로 번역되지만, 실제로 토라(Torah)는 가르침이나 지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에서도 이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잠언에서 '가르침'을 의미하는 단어는 바로 이 '토라'입니다 .

원칙적으로 같은 함의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함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의 전통에서 더 많이 비롯된 것 같습니다.

가르침이나 교훈. 따라서 이 단어는 창세기 2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여기였군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그는 모세보다 최소 5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반적인 지시, 예를 들어 자매와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잠깐만요. 어쨌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를 성실하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에 대한 전문 용어로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토라'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법률 자료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 나오는 부모의 가르침, 즉 예언적 가르침에도 적용합니다. 토라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글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맥락에서 몇 가지 다른 단어도 사용됩니다. '후카(huqqah)'라는 단어는 법령을 뜻합니다. 그런데 법령 은 조금 다릅니다.

'새긴다'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변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불변의 원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누군가가 간통을 저지른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용된 변형도 매우 많았습니다. 불변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불변의 원칙에 관한 율법, 즉 토라는 좀 더 모호합니다 .

자 , 여기 또 다른 단어, 미츠봇(mitzvot)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명령한 명령들을 의미하는데, '명령하다'라는 뜻의 '짜바(tzavah)'에서 유래했습니다 . 미츠봇은 유대교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명령보다는 선행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미츠바, 즉 선행입니다.

그래서 미츠봇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미츠봇은 분명하게 발화된 계명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계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노모스'라는 그리스어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법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습니다. 천문학, 별의 법칙 같은 것들을 뜻하는 단어죠.

하지만 그것은 전통이나 법칙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별의 법칙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물리학을 생각하고, 일종의 불변의 법칙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겨진 것이 아니라 , 에테르와 빅뱅 같은 모든 것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불변하고 영원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지금처럼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리 법칙이나 천문학 법칙, 또는 다양한 과학 원리의 법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개념과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 이제 이스라엘 율법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한 왕의 통치 아래 여러 집단이 어떻게 하나로 뭉쳤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르나무나 함무라비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양한 민족을 모았을 때, 각 민족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주권자가 그들에게 부과한 새로운 법전을 갖게 되었고, 주권자와 계약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보는 것과 어떻게 유사할까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지파, 즉 12지파가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평학자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원래 완전히 분리된 집단이었으며 서로 어떤 종류의 유전적 관계도 없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각 지파와 매우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서로 다른 지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 전체 보다 더 그랬습니다 . 그리고 각 지파는 나름대로의 규율과 규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 지파에 속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글썄요, 그들만의 규칙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규제하는 그들만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오기 전 유다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율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생각과 절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 시대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율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지파의 규례를 지켰던 백성들에게 그 권위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유다 지파는 살인자를 다루는 나름의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간음자를 다루는 나름의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언약 관계를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야. 자,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까? 흥미로운 건,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야.

토라에 나오는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와 모든 기록, 그리고 모든 랍비의 가르침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여기서는 비밀로 하라.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을 손에 넣으면 망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지만 랍비의 가르침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크게 신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목적은 있지만,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정에서 이러한 법적 전통이

발전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토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직후,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이집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토라에 기록된 내용이나 산비탈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내용을 넘어 율법을 확장하고, 세우고, 확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율법과 모세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제시합니다.

저는 그것이 역사보다는 역사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역사를 기록한 방식이 문제죠. 어쨌든 토라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이, 음,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토라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이 실제로는 후대에 유래한 것 같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같은 종류의 전통을 대표하기 때문에 토라에 통합된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 언제 지금의 형태로 통합되었는지는 큰 의문입니다.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이론은 에스라 시대에 율법이 실제로 성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이 오랫동안 회자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따르면, 에스라는 여러 율법 조문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백성 앞에 서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가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옷을 찢고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막절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에스라에 따르면, 그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랍비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율법을 쓰지 않았다면 에스라가 썼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에스라가 이 율법의 대필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모세와 관련된 많은 전통, 즉 이스라엘의 법적 전통을 분명히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공포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권위를 바탕으로 이 법전을 시행하고 이를 진정한 국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 시대 이전에는 법이나 전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에스라 시대 이전에도 그러한 전통이 존재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안식일을 무시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 가장 큰 불평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한 장(나중에 살펴보겠지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무시하고 있구나."

안식일에 이 모든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하고 있었어요. 에스라는 이런 일들을 하나로 묶을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서기관, 법학자라고 불립니다. 이런 전통을 작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문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죠. 뭐, 두루마리 크기지만, 이렇게 큰 규모였죠.

하지만 그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사실상 국법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율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율법의 형식은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남무 법전, 중세 아시리아 법전처럼 결의론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육 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아무 대가 없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일곱째 해에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혼자 오면 혼자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아내를 얻었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갑니다. 이것이 결의 법입니다.

토라에는 때때로 명제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 자녀를 몰락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동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아동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냥 헌신일 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이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명제적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여기 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 음, 십계명은 명백히 명제적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정말 명쾌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함무라비 법이나 레위기, 민수기 등의 율법과 십계명을 구분 짓는 요소 중 하나는 어떤 처벌 조항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됐네요. “ 살인하지 말라” 같은 계명이 생겼네요 .

좋아요, 그럼 살인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죠?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 은 없잖아요.

법을 어긴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십계명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십계명은 생각해 보면 다소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온갖 해석과 그 외의 것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항상 듣게 되는 말 중 하나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와 같은 말들입니다 . 영어 번역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모호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다소 모호해 보이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처럼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모호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과 같은 말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동안 네 모든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확장되지만, 우리가 일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닙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일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누군가 법을 어기면 물에 담가도 되지만 문지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의 베개가 울퉁불퉁하면 안식일에 머리로 털 수는 있지만

손으로 털면 안 된다는 규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일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랍비들은 그 모호함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반드시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십계명에 대해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그것들이 강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고대 세계에서는 완전히 유일무이한 마지막 계명에 대해 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와 같은 법을 누가 통과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시행하겠습니까? 사상 경찰을 동원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음탕하게 쳐다보는지 감시해야 할까요? 이 법을 규칙으로만 본다면 실제로 시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규칙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칙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규칙이 정말 규칙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규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부름받은 의무입니다.

함무라비 왕 치하의 여러 집단이 함무라비 왕국의 일원으로서 누리는 혜택 때문에 함무라비의 규칙과 법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언약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십계명이 그 법전의 근간이라고 믿습니다. 십계명은 그 자체로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의무이자,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조건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규칙이라기보다는 서약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당신에게 침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은유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경의 흔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선지자들, 물론 호세아 선지자에게서 잘 드러납니다.

에스겔서에는 그 주제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도 애처로운 탐구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결혼 관계에 있다는 생각,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헌신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간통을 저지르며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과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서약을 나누는 것입니다 .

항상 너에게 친절하고, 인내심 있고, 상냥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할게.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그런 거짓말들 많이 할게.

관계의 기반이 되는 이런 좋은 것들, 나쁜 것들까지 전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짐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에게만 진실할 거야."

그런데 이런 종류의 서약은 우리에게 꼭 새롭고 현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습입니다. 심지어 이런 법이 제정되던 시대에도 혼인 계약서에는 이런 종류의 규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유는 여기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관계의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나와 결혼할 거예요. "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십계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일부일처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아내들을 두실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쪽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물론 국민을 대신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탐욕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

이웃의 노새를 탐내는 사람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걸 감시하겠습니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 당신 스스로 감시해야 합니다.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자신 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 그리고 백성이 십계명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스스로 깊어져야 할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십계명에 관한 몇 가지 역사적 비평적 쟁점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쟁점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십계명에 대한 논의는 활발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원래 주어진 방식이나 형태가 아니며, 오랜 세월이 걸쳐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까요? 우선, 역사 비평이 기적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나타나 돌판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 놓으셨다는 생각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소 무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때문에 그걸 거부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모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대학원 시절, 가톨릭 사제인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저는 로마 교황청 연구소에서 공부했었는데, 그 친구와 모세에 대해 한 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모세가 존재했다는 건 꽤 분명하다고 말했더니, 친구가 "정말이에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네, 맞아요."라고 대답했죠.

그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가 언급한 여러 가지 사실, 예를 들어 모세가 이집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모세의 비역사성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영웅을 만들어내고 싶었다면 이집트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이름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민간 어원에 따르면 그는 강에서 끌려나왔는데, 이는 히브리어 '마샤흐(mashach)'에서 유래했는데, '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라는 이름이 이집트어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어났다'는 뜻인데, 람세스(Ramesses)의 이름처럼 '라 투트모세(Ra Thutmoses)'의 아들, 투트(Thut)의 아들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모세라는 이름은 분명히 이집트어이고, 저는 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모세가 없었다면,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모세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모세를 믿는다고 합니다. 저는 꽤 유명한 성경 학자가 한 말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는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가 존재했음에 틀림없지만, 반면에 모세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모세가 율법과 법전을 받을 시간을 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율법은 모두 후대에 와서 모세에게서 유래한 것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그건 그냥 누군가의 의견일 뿐이죠, 그렇죠? 십계명의 원래 형태에 대한 질문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좀 더 확실한 근거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우리는 다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십계명에 대한 몇 가지 다른 버전이 있고, 십계명이 암시되는 부분도 몇 군데 있어서, 단어와 순서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점을 지적하겠지만, 이 두 장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신명기 시대나 출애굽기가 기록된 시대와 신명기가 기록된 시대 사이에, 혹은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 신명기학자의 전통과 출애굽기를 쓴 사람의 전통 사이에 사고의 발전이 있었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른 사상의 흐름이 있었고, 두 가지 다른 전통이 십계명의 약간 다른 형태를 보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명이 원래 계명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명이 원래 민수기 6장부터 9장까지처럼 더 짧았고, 모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 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원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되게 하지 말라”와 같은 내용이었을 것 입니다 .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기억 하는 대신 , 원래는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와 같은 내용이었었는데, 나중에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계명 이 있는지 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 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단지 이것들이 계명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십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사용 되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4장의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되고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또 다른 점은 모든 십계명이 원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는 생각입니다 .

살인 은 사형이고, 간통은 사형이며, 탐욕과 같은 일부 요소가 추가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탐욕은 사형으로 간주될 수 없지만, 절도는 많은 학자들이 논쟁하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절도는 원래 납치만을 의미했습니다. 납치는 사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서 훔치는 행위, 즉 도둑질은 사형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 이런 것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간통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간음죄로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 답은 0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 여러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구약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율법이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로 처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유명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호세아는 아내를 노예로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당시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처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명백하며 죄가 있는 상황에서 아내를 내쫓으려면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처벌 방식 중 하나였고, 호세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간통자이자 심지어 살인자였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셔서 다윗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그의 집안에는 온갖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속에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들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배우자에게 불충실한 사람들이 있고, 남자들이 그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간통이 만연하다면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는 생각은, 실제로 어떻게 집행 되었는지를 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꽤 자주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어쩌면 사형에 처해졌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 만약 우리가, 음, 여기에는 분명히 몇 가지 가능한 예외나 배제가 있다고 말하려면, 도둑질 같은 것에 대한 예외는 왜 없는 걸까요? 탐내는 것과 같은 것에 대한 예외는 왜 없는 걸까요? 저는 이 개념이 그렇게 강력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버전의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학자들은 출애굽기 20장을 윤리적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계명 들이고 , 출애굽기 34장 10-26절은 의식적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을 꺼내려고 했는데 , 킹 제임스 성경은 아니었지만, 여기, 신국제역으로 출애굽기 3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것들을 두 개의 다른 출처 문서에 기인시키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들은 출애굽기 34장이 제사장 전통이나 신명기 전통 또는 그런 종류의 것에서 나온 버전이고, 출애굽기 20장은 야훼 전통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출애굽기 34장을 또 다른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십계명이라는 문구가 실제로 거기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읽고 여기서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과 같은 두 개의 돌판을 깎아라. 그러면 네가 깨뜨린 첫 번째 판에 쓰라고 한 말을 내가 그 위에 쓸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그 상기가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나에게 보이십시오.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고 산 어디에도 보이지 마십시오. 심지어 내가 풀을 뜯는 것을 들은 양 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모세는 두 개의 돌판과 표징을 깎았습니다.

나는 올라갔다 등등.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선포하시고, 거기 서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열정적이며, 등등. 모세는 바로 나아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여기 내가 네 모든 백성 앞에서 너와 언약을 맺는다."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는 백성은 나 여호와가 행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리라. 너희가 입력한 크레딧 I. 그들과 조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신성한 돌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어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은 질투심하시니 질투심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이것은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좋아요, 그 땅에 사는 자들과 조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음행하며 제사를 드리는 때에.

그들은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들과 함께 먹으라고 할 것입니다. 등등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계명과 매우 유사합니다. 맞죠?우상을 주조하지 마십시오. 음, 당신을 위한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십시오. 이제 내가 명령한 대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으십시오. 그것은 십계명 어디에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자궁의 첫 새끼는 내 것입니다. 양 떼나 소 떼에서 가축의 모든 처음 태어난 수컷을 포함합니다. 어린 양으로 처음 태어난 나귀를 구속했습니다. 등등. 그것은 십계명에 없습니다. 누구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 엿새 동안 일곱째 날에 일해야 합니다.

좀 쉬어야지. 알았어, 안식일이잖아? 밀 수확의 첫 열매로 칠칠절을 기념하자. 그럼 십계명에 언급되지 않은 절기를 기념하게 됐지 알았어, 일년에 세 번 너희 남자들은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효모가 든 어떤 것과도 함께 제물의 피를 내게 바치라고 명령 하지 마라 . 알았어.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 땅의 가장 좋은 열매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의 집으로 가져와라. 어미 염소의 젖으로 어린 염소를 삶지 마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명령을 기록하라. 이 말씀에 따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웠고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주님과 함께 40일 40야를 빵도 물도 먹지 않고 지냈다 . 그리고 그는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석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원래 십계명에 절기 목록과 희생 제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십계명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34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절기와 희생 제사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계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 저는 십계명이 그가 방금 말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목록에 있는 모든 다른 계명을 여러 번 세어 보았고,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네, 제가 그가 십계명을 썼다고 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다른 모든 율법도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율법이 십계명이라고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십계명의 다른 버전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은 율법의 요약입니다. 신명기 5장은 물론 더 나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과 매우 매우 유사한 버전이 있고 모세는 처음에 말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너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의 생명의 재고가 엿새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따르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창조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신명기 5장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세요. 거룩하신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엿새 동안 일하라고 명령하셨고 등등. 왜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인도해 내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알겠습니까.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의 논리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창조에서 유래시켰고, 신명기 5장의 구원 행위는 출애굽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의 집을 덮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의 어떤 것도 덮지 말라 신명기 5장 네 이웃의 아내를 덮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흥미로운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명기가 십계명의 후기이고 더 잘 반영된 버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존재론적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그것을 확립했기 때문이고, 도덕적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투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든 일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쉬십시오. 자신에게 휴식을 주십시오. 노예에게 휴식을 주십시오. 하인에게 휴식을 주십시오. 동물에게 휴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매우 신명기와 신명기의 주장 방식의 전형입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들어보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단지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탐욕에 관한 신명기의 내용은 나중에 알아볼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내를 앞으로 옮겨서 신명기에서 어느 정도 다른 것들과 분리합니다. 또한 밭을 추가합니다. 제 생각에는 밭을 추가하는 이유는 탐하는 것의 수를 일곱 가지로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들은 완성을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가지 목록을 언급하면서 이웃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죠. 일곱이 완성의 숫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가지를 말하라고 하는 거고, 이중 어떤 것도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곱 가지를 나열한다는 건 이웃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아내를 앞으로 옮길까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신명기가 아내를 가계 재산과 동일시하지 않는 전통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20장을 읽기 쉽고, 언약적 탐욕에 대한 명령은 이웃의 아내를 포함한 모든 소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이야기할게요. 물론 우리가 그 계명에 관해 이야기할 때, 신명기가 아내를 남자의 소유물 중 하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의 원래 형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다른 재구성은 단지 추측일 뿐이며 근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계명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은 10개인가요 아니면 11개인가요? 글쎄요, 모두가 십계명에 동의하는 이유는 성경에 십계명이 쓰여 있지만, 그것을 세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네 가지만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마라. 저는 이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번역은 정말 알다시피 너희 주 하나님을 너희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옛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한 것처럼. 정말 최고의 번역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집보다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정'으로 번역하겠습니다. '네 이웃의 가정을 탐 내지 말라'로 번역하지 마세요 . 우리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물리적 구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십계명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약간의 의문과 논쟁이 있는 것이지만, 순서가 무작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잘 설계된 구조가 있습니다. 우선 계명 1에서 3까지가 있는데,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출애굽기 20장이 더 정통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인데, 그것은 매우 명확한 구조, 매우 명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버전 중 일부에도 반영되지 않은 계명 1에서 3까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물 에 대한 의무에 도달합니다 .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아십니까?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동료 인간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연, 우리의 발 등에 친절하게 대합니다. 성경에서 땅에 안식일을 주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몇 년이나 몇 년을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이디어는 그 땅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세요. 이것이 다른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의 시작이고,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다지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즉 살인하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6~9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심각도 순으로 나열합니다. 저는 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다 똑같이 세 어야 합니다. 모든 죄는 똑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시죠, 누군가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지갑을 훔치거나 당신을 살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둘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살인에서 간음으로 심각도 순서가 분명히 감소했습니다. 간음은 매우 매우 나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누군가에게서 훔치는 것, 그들에 대해 거짓을 말하거나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에 대한 의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거쳐 우리의 사고 방식에 대한 의무로, 사고 방식을 존중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을 여기서 핵심으로 가져와서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간음이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나쁜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음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는다는 생각 뒤에는 많은 문화적 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맥락에서 살펴보세요. 계명은 현대 미국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우리 법정에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 가장 좋고 현명한 사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정 국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잘.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왕국에 있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입니다. 오늘날 어떤 정치적 실체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표현되는 가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신권 정치의 맥락에서 작동합니다. 계명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노엘 프리드먼은 몇 년 전에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기본적으로 십계명의 실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마다 구약 성경의 각 책을 살펴보면 다른 계명이 강조되고 때때로 그의 주장은 매우 창의적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당신이 그 주장을 직설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고하는 장황한 설명입니다. 특히 첫 번째 계명은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계명입니다. 신들, 문학적, 신학적 맥락에서도 읽어보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십계명이 히브리 성경 정경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성취되고 구체화된다고 이해되었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십계명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여러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서 제시하신 원리들을 자세히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주요 토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를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언급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인터넷에 접속해 보세요. 사람들이 십계명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웹사이트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정말 집착하는 것은 안식일 계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준수자들은 운동을 떠났고 이제는 어깨에 칩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옳스, 여기서 첫 번째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뒷받침됩니다. 바울이 썼듯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키는 율법의 수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지만 고대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어느 정도 그들의 사회를 지배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구약성경이 쓸모없다고 믿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이라는 분에게서 그런 좋은 권위를 들었습니다. 저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율법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왕국이 충만하게 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자신의 사명이 성취될 때를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명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그분이 최후의 영광으로 돌아오시고 그분의 왕국이 충만하게 임할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마음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 강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했듯이 아무도 이웃에게 "주님을 알아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충만하게 올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접근하신 방식은 율법의 의도를 지키는 것이었고,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천막에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반복해서 강조할 것은 율법의 문자보다는 율법의 의도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에 대해 말하자면, 성령은 율법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영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 등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슬라이드가 몇 장 더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건 넘기겠습니다.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좋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것과 같은 두 개의 돌판을
 깎아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그 상기가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나에게
 보이십시오.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고 산 어디에도 보이지 마십시오. 양
 때도 풀을 뜯지 마십시오. 모세 가 두 개의 돌판을 깎고 시내산이
 올라갔습니다. 등등 그런 다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따라가셨습니다. 모세가 땅에 엎드려 뵙시다. 여기서 내가 네 모든 백성
 앞에서 너와 언약을 맺겠습니다. 나는 기사를 행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는 백성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너희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아세라 상을 베어 버리겠습니다. 주님 의 이름 이
 질투심이시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분명히 첫 번째 계명과 일치합니다. 그곳에 사는 자들과 조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음행하고 제사 를 드릴 때
 그 땅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먹으라고 초대할 것입니다 등등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계명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상을 주조하지
 마십시오. 무교병을 먹지 마십시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십시오. 내가 지금 명령한 대로 십계명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자궁의 첫 새끼는 나에게 속합니다. 당신의 가족의 모든 처음 태어난
 수컷을 포함하여 양 떼나 소 떼에서 처음 태어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십시오. 십계명 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6일 동안 일하십시오. 밀 수확의 첫 열매로 칠칠절을
 기념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십계명에 언급되지 않은 절기를
 기념합니다. 일년에 세 번 당신의 사람들은 주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어떤 것과도 함께 나에게 제사의 피를
 드리지 마십시오. 유월절 제사를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마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 어린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들을 기록하십시오. 이 말씀에 따라 나는 너희와
 언약을 세웠고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주님과 함께 40일 밤낮으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석판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축제와 희생 제사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계명에는 두 가지 다른 버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버전이 있었고 출애굽기 34장 버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축제와 희생 제사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십계명이 그가
 방금 말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목록에
 있는 모든 다른 계명을 여러 번 세어 보았지만 10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기록했다고 말하지만 그가 언급한 다른 모든

법률도 있고 그는 출애굽기에 있는 법률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34는 다른 하나이고 10 계명이니 출애굽기 34장은 율법의 요약입니다. 신명기 5장, 물론 이것은 더 나은 경우입니다.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과 매우 유사한 버전이 있고 모세 는 서두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큰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옛새 동안 너희는 일하여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너희와 너희 아들들의 가축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옛새 동안 너희는 네 일을 행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노예였음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신명기 5장에는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창조 행위 신명기 5장은 출애굽에서 일어난 구출 행위이고, 여기서는 탐내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어떤 소유도 신명기 5장에서는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는 흥미로운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명기가 십계명의 후기이고 더 잘 반영된 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존재론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덕적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도덕적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고 힘겨운 일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가도록 배려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하루를 쉬고 휴식을 취하세요. 노예들에게 휴식을 주세요. 이것은 신명기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신명기는 출애굽기를 떠올리게 하는 주장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단지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명기에서 탐욕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살펴볼 중요한 이유들이지만, 그들은 아내를 앞으로 옮겨 다른 것들과 어느 정도 구분해 놓았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밭도 더하고 제 생각에는 밭을 더하는 이유는 탐내는 것의 수를 일곱 가지로 늘리기 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성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가지를 나열한 다음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일곱 가지는 완성의 수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나열한 다음 일곱 가지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왜 앞으로 옮길까요? 누가 알겠냐고 하지만 이유 중 하나는 신명기가 아내를 가계 재산과 동일시하지 않는 전통을 반영하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서 이웃의 아내를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말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을 읽기 쉽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계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신명기가 아내를 남자의 소유물 중 하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의 원래 형태를 나타내는 이유일 수 있고, 다른 재구성은 단지 추측일 뿐이며 근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은 10계명인가요, 아니면 11계명인가요? 글썄, 모두가 십계명이라는 데 동의할 겁니다.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잠깐 이것들을 생각해 보자.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네 가지만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에 네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는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이 번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옛날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한 방식이 정말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다시 탐내지 말라. 나는 이것을 집이 아닌 조금 다르게 번역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정으로 번역하겠습니다. 이웃의 가정을 탐 내지 말라는 번역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구조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다루겠습니다. 십계명의 이후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약간의 의문과 논쟁이 있지만 순서가 무작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잘 설계된 구조가 있습니다. 우선 계명 1~3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20장이 더 정통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버전에도 반영되지 않은 매우 명확한 구조, 매우 명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 1~3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런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물에 대한 의무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보존하고 동료 인간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연과 밭 등에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땅에 안식일이나 경우에 따라 연도를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땅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창조물에 대한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이것이 다른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의 시작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각성의 계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아니요, 모두 똑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죄는 같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지갑을 훔치거나 당신을

살해하는 것이 더 낫냐고 묻는다면 그것들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아니요, 여기에는 분명히 심각성의 순서가 낮아집니다. 나쁜 것에서 누군가에게서 흠치는 것, 그 사람에 대해 거짓을 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사고 생활에 대한 의무로, 그리고 사고 생활을 정리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십계명을 읽어야 합니다.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이것은 간음이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나빴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음을 이해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이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맥락에서 살펴보십시오. 계명은 현대 미국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장 좋고 현명한 사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권 정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정치적 실체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표현된 가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신권 정치라는 맥락에서 작동합니다. 계명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고합니다. 데이비드 노엘 프리드먼은 몇 년 전에 아무도 정말로 확신하지 못했지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기본적으로 십계명의 실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사례에서 구약 성경의 각 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계명이 강조되었고 때때로 그의 주장은 매우 창의적이지만 요점은 그의 무표정한 표정이 실제로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언하는 장황한 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큰 계명입니다. 문학적, 신학적 맥락에서도 읽어보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십계명이 성취되기 위해 히브리어의 일부이며 구약의 다른 책에서 모두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비추어 그것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명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해 매우 자세히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이라는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 시대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룰 또 다른 질문은 제가 해야 할 만큼 주의를 기울일 수 없지만 적어도 언급해야 할 것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십계명이 완전히 오늘날의 기독교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폐지했고 그들이 정말로 집착하는 것은 안식일 계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 준수자였던 사람들이 있고 그 운동을 떠났다가 지금은 칩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인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뒷받침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는가로 우리 자신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고대 사회의 일부였던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구약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믿지 않으며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서 좋은 권위를 얻었고 제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하라 나는 그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노라 그리고 그의 사명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사명은 그가 최후의 영광으로 돌아오고 그의 왕국이 충만하게 올 때 성취될 것이며, 그때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마음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 중 누구도 율법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이 충만하게 올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접근하신 방식은 율법의 의도를 지키는 것이었고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살펴보면, 우리는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의도를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은 율법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영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몇 장 더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 등에 대해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십계명과 율법입니다.